

케바우사 플라잉 잡 체인지 프린팅 인더스트리즈 인터테크 기술상 수상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케바우사는 최근 케바우사의 기술이 집약돼 있는 ‘플라잉 잡 체인지’가 미국의 프린팅 인더스트리즈 인터테크™ 2011년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인터테크 기술상은 오는 9월 11일 그래프 엑스포 기간 중 2011 프리미어 인쇄대상 및 인터테크 기술상 갈라쇼에서 케바우사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 6년 동안 케바우사는 2005년 9B(81인치) 라피다 205, 2006년 자니어스 52 UV 오프셋인쇄기, 2007년 라피다 105의 유일한 SIS 사이드레이없는 인입장치로 4개의 인터테크상을 수상했다.

케바우사 북아메리카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마크 히셔씨는 “우리는 높이 갈채를 받고 있는 미국의 프린팅 인더스트리즈 인터테크 기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에 긍지를 갖는다. 케바우사의 플라잉 잡체인지는 시장에서 중대한 기술학상의 충격을 만들어냈다. 이는 오프셋에서의 품질, 넓은 용지의 적용범위, 속도 그리고 디지털 인쇄기의 기술학적 전환시점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최적의 생산 기술로, 어느 다른 매업 인쇄기 제작사도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인쇄중 판교환 가능한 플라잉 잡 체인지

플라잉 잡 체인지를 이용하면 시간당 1만매의 속도로 인쇄작업을 하는 중에 개개의 새로운 작업을 위한 인쇄판들을 교환할 수 있다. 인쇄판 교환후 시간당 1만8천매의 생산속도로 다시 가속할 수 있다. 즉, 작업 준비를 위한 정지시간이 필요없고, 생산작업 중단없이 완료할 수 있다. 과감한 생산작업 시간과 가동중지의 감소로 작업자는 생산작업 중에 다음 작업을 위한 인쇄기 준비도 가능하다. 케바우사의 기술이사인 크리스 트라비스씨는 “플라잉 잡 체인지는 생산성이 높아 3대의 인쇄기를 단지 두 대의 라피다 106 41인치 기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라며 “이는 시설, 바닥면적 공간, 소모품, 인력 그 이상의 주요한 것을 절약해준다”고 말했다.

플라잉 잡 체인지 기술은 자동화 모듈 즉 동시 인쇄판 교환을 포함하고 있어 작업 중에도 모든 판들을 동시에 장착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케바우사의 플레이트-아이텐트를 장착하고 있어서 인쇄판 전면부에 있는 도트 매트릭스 코드를 이용하여 정확한 인쇄유닛에 올바른 인쇄판이 있는지를 구분하고 또한 사전설정 기능으로 인쇄기로 작업자료를 전송한다. 케바우사의 관계자는 “플라잉 잡 체인지 기술과 플레이트-아이텐트 기능으로 인쇄사들은 더 많은 생산량, 더 나은 인쇄품질 그리고 더 큰 인쇄용지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프린팅 인더스트리즈는 약 일백만 종사자를 가진 산업을 대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픽 아트 교역기구이다. 미국 프린팅 인더스트리즈는 관련기관과 함께 옹호, 교육, 연구 그리고 기술적인 정보를 통하여 이의 회원사와 산업계의 성장, 효율 그리고 이익을 강화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_ www.printing.org 